



8월 정세분석 및 전망



8월 중순 청와대 개편 및 개각 등 국면 전환 승부수 나올 듯

- 미디어법 강행처리 등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으로 일관하는 MB정권은 중도실용·친서민 정책을 포방하며 국정기조를 변화하고 있음. 이에 정권은 이번 미디어법 처리 및 쟁점법안을 처리하고 청와대 개편과 개각을 단행하는 등 대국민 화합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
- 특히 이번 개각에는 총리, 법무부 장관 등 상당수의 장관들이 물갈이 될 것으로 보이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 언론에서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 적이 있음. 한편 이번 개각 인선에서 ▲친서민적 인물(도덕성, 청렴성) ▲대국민 화합 인물 등이(친박계) 얼마나 중용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음



국회, 여야 대치 심화되고 농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 있을 듯

- 현재 국회는 미디어법 강행처리 후 심한 대치 국면에 직면해 있음. 한나라당의 경우 경쟁력 강화 등 이명박 정권의 상징과 같은 법이고 민주당에서는 언론장악-재집권 토대 마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각 당 입장에서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입장임
- 특히, 농업계에서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정비 사업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음. 실제,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태생지라고 할 수 있는 팔당호 인근 농경지를 비롯해 하천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상당수 농경지가 홍수 예방과 친수공간(자전거도로, 체육공원 등)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수용 될 것임
- 이렇게 4대강 정비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를 경우 ▲하천부지 영농행위 금지 ▲보상규모 적정성 ▲4대강 정비사업에 따른 일반 예산 축소 등으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. 이에 4대강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현장에서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



수확기 쌀값 단경기 계절진폭 예의주시해야...

- 산지 쌀값은 수확기 이후 약세를 보이면서 4년 만에 역계절진폭(단경기 쌀값이 수확기보다 떨어지는 현상)이 발생. 미국종합처리장(RPC) 등 산지 매입주체들의 재고는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늘고 있음. 2004년 풍년 → 재고 증가 및 단경기 역계절진폭 발생 → 2005년 수확기 RPC 등의 매입 기피 → 쌀값 폭락' 현상이 재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
- 이에, 농민단체들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▲쌀 재고의 신속한 시장격리 ▲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재개 ▲쌀소비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음. 만약, 정부가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아 수확기 쌀값이 대폭 하락할 경우 ▲엄청난 변동형직불금 지급 ▲산지 농민과 갈등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